

홈커밍데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 주 선 (영여 6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장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 9일 개최된 <2012 서울대 사대 홈커밍데이>에 모교 은사님, 교수님, 원로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비라도 오면 어쩌나 마음을 졸였는데 하나님도 화창한 햇살로 속복해 주셔서, 사대인의 화합과 도약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제대로 펼쳐진 듯합니다.

그동안 서울대 동창회에서 주최하는 홈커밍데이는 해마다 있어 왔습니다마는, 우리 사대만의 홈커밍데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사 장소, 행사 내용, 참석 인원, 소요 경비 등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모교의 김종욱 학장님께서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유용재 부학장님, 각 과의 동문회장님, 그리고 동창회의 임원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자고 열의를 모아 주셔서 모두들 보람을 느끼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행사의 넉넉한 준비를 위해 후원금을 주시고 물품으로 창조해 주시고, 행사의 순서를 맡아 기꺼이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교에 대한 영원한 사랑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모교란 무엇인가, 서울사대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교는 어머니 학교입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대 사대를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단숨에 호형호제하는 형제지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이 되는 사대를 나왔습니다.



그것도 국립 사대를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직에 봉직했던 안 했던 간에 교직에 아련한 향수를 느끼고 있으며,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교실은 날로 황폐해지고 교사는 점차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교사임용고시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교사가 되고 나면 직업에 대한 강한 회의에 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년 퇴직 전에 명퇴 신청이 날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학생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선생님의 교육적 권위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군사부 일제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선생님의 자리에 있어야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가 약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大選)에 선생님 자리를 지켜주는 교육 공약 하나를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대인의 열의

우리는 우리의 모교 서울대 사대가 보다 더 충실하게 교육적 사명을 다하기를 염원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이 하루 빨리 그 본궤도를 되찾아서 국민교육의 막중한 사명을 완수해 나가기를 염원합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모든 사대인들은 발벗고 나서서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대인의 화합과 도약을 다지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하는 것도 이러한 우리 염원의 한 표현일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홈커밍데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會報는 全체敎育 崔容準(數·61人) 會長의 厚誼로 費用 全額을 出捐하여 刊行된 것입니다.

홈커밍데이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 주 선 (영여 6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장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 9일 개최된 <2012 서울대 사대 홈커밍데이>에 모교 은사님, 교수님, 원로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비라도 오면 어쩌나 마음을 졸였는데 하나님도 화창한 햇살로 속복해 주셔서, 사대인의 화합과 도약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제대로 펼쳐진 듯합니다.

그동안 서울대 동창회에서 주최하는 홈커밍데이는 해마다 있어 왔습니다마는, 우리 사대만의 홈커밍데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사 장소, 행사 내용, 참석 인원, 소요 경비 등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모교의 김종욱 학장님께서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우용재 부학장님, 각 과의 동문회장님, 그리고 동창회의 임원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자고 열의를 모아 주셔서 모두들 보람을 느끼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행사의 넉넉한 준비를 위해 후원금을 주시고 물품으로 창조해 주시고, 행사의 순서를 맡아 기꺼이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교에 대한 영원한 사랑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모교란 무엇인가, 서울사대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교는 어머니 학교입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대 사대를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단숨에 호형호제하는 형제지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이 되는 사대를 나왔습니다.



그것도 국립 사대를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직에 봉직했던 안 했던 간에 교직에 아련한 향수를 느끼고 있으며,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리의 권위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육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교실은 날로 황폐해지고 교사는 점차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교사임용고시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교사가 되고 나면 직업에 대한 강한 회의에 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년 퇴직 전에 명퇴 신청이 날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학생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선생님의 교육적 권위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군사부 일제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선생님의 자리에 있어야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가 약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大選)에 선생님 자리를 지켜주는 교육 공약 하나를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대인의 열의

우리는 우리의 모교 서울대 사대가 보다 더 충실하게 교육적 사명을 다하기를 염원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이 하루 빨리 그 본궤도를 되찾아서 국민교육의 막중한 사명을 완수해 나가기를 염원합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 모든 사대인들은 발벗고 나서서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대인의 화합과 도약을 다지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하는 것도 이러한 우리 염원의 한 표현일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홈커밍데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會報는 全會教育 崔容準(數·61人) 會長의 厚誼로 費用 全額을 出捐하여 刊行된 것입니다.

800여 동문 참여 속에 감동의 축제 펼쳐져

날씨도 쾌청, 대성황 이뤄

동창회(회장 변추선)와 사범대학(학장 김종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2 서울대 사대 홈커밍데이> 행사가 지난 6월 9일 청명한 날씨 속에, 선택님 후배님들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대 사대 관악캠퍼스에서 대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오전 행사는 각 과 동문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사범대 교정에 각 과별로 배정된 전막에서 집수를 받은 후, 개인별로 캠퍼스를 관광하거나 가벼운 등산을 하기도 하고, 졸업생과 재학생이 정담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각 과별로 원로동문으로부터 재학생에 이르기까지 동문들이 함께 모여 각 과에 배정된 강의실에서 도시락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생물과의 경우에는 배드민턴과 테니스를 즐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 환영사를 하는 김종욱 학장

대강당 가득한 화합의 열기

공식 행사는 오후 2시에 사범대 12동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선후배 동문들로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들어찬 대강당에서 KBS 파리 특파원, SBS 보도본부장 출신이며 시인인 유자효(불어과 68) 동문의 품위 있는 사회로 공식행사는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변추선 회장의 개회사, 김종욱 학장의 환영사에 이어 정범모(교육과 2회 졸업) 교수님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사대 학생회장 고한석 군의 인사말이 뒤를 이었다. 끝으로 변추선 회장으로 부터 모교에 발전기금 1,000만원이 전달되었다.



▲ 격려사를 해 주시는 정범모 원로동문

장충식 원로동문의 특별 연주

1부 행사에 이어 2부 행사는 재현구(체육과 78) 동문과 재학생 김지완 양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었다. 2부 행사의 첫머리는 장충식(단국대 명예총장) 원로동문께서 열어주었다. 10명으로 짜여진 전문 플룻 연주자들과 함께 평소와 같고 닥으신 플룻 실력을 보여주었으며, 애틋로 우리 가곡 <그네>를 열창하여 80대의 노익장을 발휘하시어서 전 동문의 환호를 받았다. 뛰어난 초정림 <두드락 비트 퍼포먼스>의 공연이 대강당을 가득 울렸다.



▲ 모교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변추선 회장



▲ 1부 사회를 맡은 명사회자 유자효 동문



▲ 2부 사회를 맡은 재현구 동문과 김지완 학생

각 과 선후배 사이의 따뜻한 사랑 나눔



▲ 두드막 비트 퍼포먼스의 정열적인 연주



▲ 부설여중 동문 선생님들의 장기자랑



▲ 불어교육과 재학생들의 장기자랑



▲ 체육교육과 재학생들의 장기자랑

흥겹게 펼쳐진 장기자랑

장기자랑은 단순한 개인의 장기자랑이 아니라, 각 과별 대항 공연전이 되어 흥미를 북돋우었다. 특별히 사대부설여중에 재직하는 동문 선생님들의 기발한 단체 댄스는 장내 분위기를 한껏 들뜨게 하였으며, 불어교육과, 체육교육과 재학생들이 벌인 연극 퍼포먼스는 아이디어나 연기력이 빼어나 호뭇한 웃음을 동문들에게 선사해 주었다. 장기자랑 1등은 체육교육과 재학생팀에게 돌아갔다.

무뚝한 경품 잔치

장기자랑 류름이 동문들이 찬조한 물품들을 경품 뽑기로 상상을 했는데 당첨된 동문들의 입가에 활짝웃음꽃이 피었다. 3시간여의 공식 행사는 모교 교가를 끝으로 마무리됐는데 끝까지 함께한 동문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범대 동창회 행사 중에 가장 성대한 행사였다고 주최측을 칭찬해 주었다. 이날의 행사에 각 과 재학생들의 봉사도 칭찬의 대상이었는데, 특히 체육교육과의 재학생, 조교들의 적극적인 봉사가 동문들을 흐뭇하게 했다. 8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잔치에 전 학과가 끝고루 참여했는데, 특히 체육교육과 동문이 90여 명, 교육학과 동문이 80여 명 참석하여 든든한 우의를 뽐냈다.

모교의 자랑 원로동문님

이날 행사에는 경사 출신 원로동문님들, 그리고 정범모(교육 2회), 이두현(국어 2회), 이원순(역사 3회), 정원식(교육 5회), 홍성숙(가정 7회), 장중식(역사 9회), 유중상(체육 9회), 장병덕(화학 10회), 김재호(생물 10회), 노희덕(체육 10회), 신동순(체육 10회), 최승우(교육 11회), 박갑수(국어 11회), 송수남(체육 11회), 김순오(가정 12회), 최병호(화학 14회) 원로동문님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고, 후학들의 많은 칭송을 받았다.



▲ 장기자랑 1등상은 체육교육과에 돌아가고



원로동문들의 각별한 사랑 어우러져

후원·협찬금 6,000여 만원 담지

처음으로 치르는 큰 행사인 만큼 행사 경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했으나 동문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오히려 흑자 행사를 치렀다. 우선 각 과의 분담금을 100만원으로 하였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15개 학과 모두 분담금을 완납했으며, 여성동문회(회장 임공희)에서도 후원금을 보냈다. 변주선 회장이 1,000만 원을 희사했으며, 사대 동창회에 여러 가지로 공헌을 해 온 천계교육(주)의 최용준(수학 61) 동문도 1,000만 원을 희사하였다. 대학에서도 500여만 원을 협찬했으며, 송수남(체육 54) 동문도 500만 원을 협찬했다. 이 외에 31명의 동문들이 기쁘게 협찬금을 내 주었다.

정원식 원로동문께서 짐바와 도자기 협찬

경품으로 시상할 물품도 푸짐하게 협찬되었다. 스키케어 제품, 생활용품, 액션피규어, 완구류, 요가매트, 천계교육의 도서 등 다양한 협찬품이 동문들을 즐겁게 했다. 변주선 회장은 고가의 대립성모병원 원액종합검진권 6매를 협찬해 주었으며, 정원식(교수 48) 원로동문께서도 귀하게 소장하시던 아프리카 짐바와의 토속 도자기 한 점을 협찬해 주셨다.

준비모임 및 평가회 열려

동창회와 대학측은 성공적인 홈커밍데이 행사를 위해 여러 차례 준비모임을 가졌다. 임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는데, 특히 주무불 받은 정찬모 총무부 회장과 우용제 부회장의 공이 컸다. 행사 후에는 두 차례의 평가회가 열려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6월 21일에는 서울역 앞 일복림 중식당에서 변주선 회장이 각 과 동문회장 및 집행부 임원 등 25명을 초청하여 합동 평가회의를 가졌고, 7월 3일에는 김종욱 학장 초청으로 변주선 회장과 임원진, 대학의 우용제 부학장, 이경화 부학장, 각 과 학과장 등 24명이 모여 평가회를 가졌다.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자평과 함께 아쉬웠던 점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점심식사 도시락 때문에 착오를 일으켜 동문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은 유에 티었다는 반성이 있었다.



▲ 동문들에게 인사하시는 정원식 원로동문



▲ 교내 주어를 하는 동문들



▲ 대학에서 마련한 각 과 전시물



▲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는 동문들



▲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는 동문들

사랑하는 우리 모교 師大여, 영원하라!



▲ 교육학과



▲ 국어교육과



▲ 영어교육과



▲ 특수교육과



▲ 체육교육과



▲ 사회교육과



▲ 역사교육과



▲ 지리교육과

선후배의 돈독한 우정이여, 영원하라!



▲ 윤리교육과



▲ 수학교육과



▲ 물리교육과



▲ 화학교육과



▲ 생물교육과



▲ 지구과학교육과



▲ 체육교육과



▲ 가정교육과

후원해 주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금

성명	학과	학번	금액(원)
변주선	영어교육	1960	10,000,000
최홍준	수학교육	1961	10,000,000
송수남	체육교육	1964	5,000,000
장중식	역사교육	1951	2,000,000
강신주	사회교육	1951	1,000,000
장병덕	화학교육	1953	1,000,000
이해성	국어교육	1958	1,000,000
박두래	사회교육	1959	1,000,000
임철순	수학교육	1960	1,000,000
최병호	화학교육	1967	500,000
윤용희	국어교육	1960	500,000
정정희	체육교육	1962	500,000
서한샘	국어교육	1964	500,000
신경숙	화학교육	1967	500,000
이영석	화학교육	1967	500,000
장재현	역사교육	1980	500,000
이두연	국어교육	1946	300,000
김삼준	국어교육	1948	300,000
김재호	생물교육	1953	300,000
김장필	교육학과	1960	300,000
이희용	교육학과	1960	300,000
박성수	교육학과	1961	300,000
김범기	물리교육	1966	300,000
정희현	불어교육	1966	300,000
권재술	물리교육	1966	300,000
정찬모	체육교육	1966	300,000
김성열	교육학과	1975	300,000
김갑순	물리교육	1960	200,000
이동식	영어교육	1972	200,000
이종오	사회교육	1950	100,000
김영숙	교육심리	1954	100,000
최홍욱	교육심리	1954	100,000
정원호	생물교육	1958	100,000
김경휘	국어교육	1960	100,000
오정자	영어교육	1960	100,000
이희자	기정교육	1960	100,000
임반장	체육교육	1960	100,000
권순용	교육행정	1961	100,000
김장봉	체육교육	1964	100,000
최치평	역시교육	1965	100,000
최규만	체육교육	1966	100,000
황종복	역시교육	1966	100,000

성명	학과	학번	금액(원)
최노성	물리교육	1968	100,000
곽장선	영어교육	1972	100,000

▶ 각 과에서 부담해준 후원금

과목	금액(원)
교육학과 (회장: 김계현)	1,000,000
국어교육과 (회장: 박심서)	1,000,000
영어교육과 (회장: 이병호)	1,000,000
독어교육과 (회장: 김명근)	1,000,000
불어교육과 (회장: 서철래)	1,000,000
사회교육과 (회장: 김봉호)	1,000,000
역시교육과 (회장: 정진석)	1,000,000
지리교육과 (회장: 최윤식)	1,000,000
윤리교육과 (회장: 윤건영)	1,000,000
수학교육과 (회장: 배규홍)	1,000,000
물리교육과 (회장: 이상목)	1,000,000
화학교육과 (회장: 오두환)	1,000,000
생물교육과 (회장: 김재영)	1,000,000
지구과학교육과 (회장: 박수인)	1,000,000
체육교육과 (회장: 고남호)	1,000,000

▶ 특별 후원금

사범대학 (회장: 김종욱)	5,933,000
14회 일수의 (회장: 박병석)	500,000
여성동문회 (회장: 임필희)	500,000
정사모리리 (회장: 김경수)	300,000

▶ 협찬 품목

성명	학과	학번	품목 / 수량
정원식	교육학과	1948	중부아프리카 정마하 도서(1900년경 발행) 1권
정희경	교육학과	1951	유니버시티 스킴어제출 85개
박영희	수학교육	1954	생활/주방용품 - 다양
최영삼	영어교육	1956	일본코칭과 임원코칭 도서 - 40권
이인규	지구과학	1959	미미월드 연구 - 50점
변주선	영어교육	1960	대일성모병원 혈액종양검진권 - 6매
최홍준	수학교육	1961	99년생교육 도서 - 지원(한책씩)
고윤식	영어교육	1965	엑선피규어(수집가용) - 5점
정강주	체육교육	1969	요가매트 - 10개
김종욱	지리교육	1971	상품권
천원호(서기년회)회장 정원식	의료용	성주 - 180권	
대일성모병원(위원장: 변주선)	물, 윤료	- 각 700명	
부설아고(부여중, 부중, 부고)	주방용품	- 6점(30만원 상당)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함께해 준 행사위원회

● 고 문 (입학년도순)

김중서, 정범모, 이두현, 이원순, 김남표, 우인섭, 김상준, 신찬우, 정원식, 김영식, 박한식, 함도연, 손수일, 이용오, 강신주, 장충식, 정희경, 박우섭, 민병준, 유용상, 김재호, 김후관, 노희덕, 박동영, 박용현, 장병덕, 최태상, 박영희, 송수남, 심명호, 이범재, 최용욱, 강신호, 김순오, 박용서, 장용택, 황재기, 김미자, 박한구, 이준희, 이상주, 최영삼, 최종필, 김대식, 김필수, 김화영, 이상익, 최병호, 장호봉, 김창규, 나근형, 신성택, 이혜성, 강규석, 정학호, 김신일, 김학천, 민홍기, 박두래, 최영안, 이기석, 이인규, 임종욱, 정종률, 홍순관, 강승식, 김갑순, 서정신, 유원근, 유용희, 이희용, 황승봉, 임민장, 이규택, 최용준, 김홍기, 안상수

● 자문위원 (입학년도순)

김광휘, 김조영, 박형준, 최준영, 권순용, 김용원, 박성수, 안희수, 양교석, 유용섭, 최희선, 박영민, 윤정일, 강신복, 김경수, 신 훈, 이원우, 정용근, 김기광, 이종재, 최병신, 김항원, 김달수, 최영진, 송무영, 권재술, 노옥섭, 김필기, 박성익, 이규석, 이영란, 정화현, 강신덕, 국동식, 이승일, 박승윤, 이규복, 송해규, 이병률, 이복주, 장 호, 천한신, 최영준, 최용승, 황종복, 윤용민, 최현섭, 김명수, 이종라, 류근찬, 박연수, 김수자, 오경환, 유재효, 이명천, 심지훈, 윤석원, 최동형, 이강섭, 이경복, 구관서, 복성규, 김명근, 원혜영, 강현재, 이원희, 김우식, 최창신, 모택상, 이정식, 옥정석, 이홍서, 이재형, 조현익, 김경희, 김정기, 엄호성, 이지별, 김성열, 안양욱, 강신욱, 삼구진, 주영섭, 심재필, 서상훈, 장재혁

● 위 원 장 : 변주선(동창회 회장), 김종욱(사대 학장)

● 부위원장 : 김영길, 이희자, 정청희, 서한샘, 임공희, 신경숙, 이동식, 김창철, 전상학, 이미나

● 학과 동문회장

김세현(교육), 박삼서(국어), 이병호(영어), 김명근(국어), 서형래(불어), 김봉호(사회), 정진석(역사), 최윤식(지리), 윤진영(윤리), 박구홍(수학), 이성목(물리), 오두환(화학), 김재영(생물), 박수인(지구), 고남호(체육)

● 학교장

안승희(교육), 윤여택(국어), 이병민(영어), 권오현(국어), 함운희(불어), 이미나(사회), 서희석(역사), 이상일(지리), 박한구(윤리), 권오남(수학), 진동열(물리), 노혜희(화학), 김영수(생물), 최승인(지구과학), 최희창(체육)

● 집행위원장 : 정진모(동창회 부회장), 우윤재(사대 부학장)

● 집행 위 원 : 최기수, 고윤섭, 최귀남, 이영석, 소남섭, 박영식, 박준연, 채현구, 설원태, 송우엽, 최희화, 이경희, 최유정, 박재정

● 진 행 오 원 : 이용수, 최영기, 이승룡, 류형근, 송연우, 유준희, 남궁원, 김봉태, 신동훈, 임재성, 조성훈, 주상욱, 김민수, 정철원, 김지연, 이봉민, 박동욱, 장민구, 배은영, 정재선



1박 2일의 아름다운 추억을 심고



동문들의 즐거운 나눔이

지난 7월 17일~18일, 1박 2일 코스로 사대 동창회가 주최하는 2012 여수엑스포 문화탐방 행사에 전주선 회장을 비롯한 동문 42명이 즐거이 참여했다. 주중 행사라 직장을 가진 동문들의 참여가 저조했으나, 체육교육과 11명, 영어교육과 10명, 생물교육과 5명, 국어교육과 4명, 불리교육과 3명, 가정교육과 3명, 교육학과 2명, 특이교육과 2명, 화학교육과 2명 등 비교적 골고루 참가했다. 행사기간이 장마철이라 날씨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사대인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아였는지 하늘님이 보우하시문화탐방단이 가는 곳마다 비가 멈추어 큰 불편이 없었다.

"지난번 출커링데이 때에도 하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번에도 하늘이 도와주신다."고 변 회장이 특히 좋아했다.



실아 있는 바다·습수는 연안 주제

아름다운 여수 앞바다를 끼고 펼쳐진 엑스포 현장은 흥성이는 사람들의 물결로 넘쳤다. 국제르타리 3610지구 김중의 전 총재의 안내로 무김한 장어구이 정식을 점심으로 즐긴 우리는 엑스포 조직위원회 의원님의 도움으로 곳곳을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었다. 엑스포는 기후 변화, 해양 경제, 식량 부족 등의 인류 현안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짜여져 있었다. 우리는 한국관을 비롯하여 주요한 국제관 몇 곳을 관람하며 엑스포 분위기에 녹아들어 갔다.



엑스포의 입권, 빅 오 쇼

"빅 오 쇼를 보지 않고는 여수엑스포를 말하지 말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었다. 저녁식사 후 빅 오 쇼를 기다리는 밤 시간이 무료하기는 했지만, 노천 계단 앞에서 불시에 펼쳐진 김계규(영어 61) 동문의 장가지리라는 감시 동안 우리를 흥겹게 하기에 충분했다. 여수 앞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빅 오 쇼는 첨단 IT 기술에 스토리텔링을 융합한 감동적이고 경이로운 밤하늘의 시사시였다. 신음하는 바다의 현실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 바다의 모습을 웅장한 IT 쇼로 구현한 빅 오 쇼에 질로 탄성이 나왔다. 거기에 더해지는 거대한 분수 쇼와 불꽃놀이! 빅 오 쇼는 과연 여수 엑스포의 진수(眞髓)였다.



경이로운 빅 오(Big-O) 쇼의 장관 순천만 · 송광사의 정취에도 젖어

아침시간에 가진 동문들의 화목 축제

하룻밤 편안히 쉬고 이튿날 아침에 바라본 호렙 앞 여수 앞바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즈넉한 한 폭의 풍경화이던지! 로타리 총재의 안내로 찾은 인근의 식당은 우리들만의 시간을 갖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아침 식사 후 즉석에서 펼쳐진 작은 축제(?)는 시한생(국어 64) 동문의 사회로 화기에어하게 진행되었다. 각 과별로 시르בל 소개하고 장기자랑도 펼쳐져 뜻하지 않게 시르בל 길이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어명하, 김반기(교육 59) 동문의 성악과 창은 전문가 수준이었고, 이젯밤 우리를 자지러지게 했던 김계규(영어 61) 동문의 코믹한 만담도 우리를 즐겁게 했다. 김종원(영어 61) 동문의 리드도 빛났다.

자연생태의 보고(寶庫), 순천만

아침 식사 후 우리 일행은 대한민국 생태계의 보고인 순천만으로 향했다. 김승욱의 소설 무진기행의 무대인 순천만은 5.4km에 아득하게 펼쳐진 갈대밭과 22.6km의 광활한 갯벌이 어우러진 사경적인 생태공원이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갈대밭을 거니는 경위에 동문 모두는 흠뻑 취하는 듯했다. 더위를 식혀 주는 시원한 바닷바람에 잠시 휴식은 끝맛이었다. 순천만이 품고 있는 생명 찾기 여행을 뒤로 하고, 우리 일행은 전남 로타리 양근송 전 총재의 안내로 토속적인 걸음을 맛있게 들었다. 이번 여행에서는 로타리 총재분들의 직접 안내를 받는 호사를 누렸는데, 그것은 국제로타리 세계 이사인 김경태 대림성모병원 이사장(변주선 회장 부군)의 특별한 배려 덕이었다.

승보(僧寶) 사찰 송광사(松廣寺)를 찾아서

점심 후, 한국의 삼보(三寶) 사찰의 하나인 송광사를 찾았다. 불보(佛寶) 사찰 풍도사, 법보(法寶) 사찰 해인사와 함께 승보(僧寶) 사찰 송광사가 바로 삼보(三寶) 사찰인데, 고승대리를 많이 배출한 한국불교의 중심답게 그 승경의 신비로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듯했다. 세속의 맘을 잠시 씻은 후 우리는 서울로 향했다.

2012 여수엑스포 문화담양에 쓴 변주선 회장의 각별한 배려에 감사한다. 그리고 정경희(체육 62) 행사단장, 정찬모(체육 66) 총무부 회장, 최귀남(체육 66) 차세대관광부회장 등 실무진의 노고에 감사한다.



會長 動靜 및 동창회 來訪 人士

■ 會長 動靜

(2012. 5. 5. ~ 7. 20.)

5. 14. 사촌의 참석-사별대하
5. 15. 청연회(회장 이봉식) 참석
5. 16. 임원회의-홍키명대이 준비
5. 21. 청강회(회장 윤용택) 참석
5. 24. 임원회의-홍키명대이 준비
6. 9. 홍키명대이-사별대하 교정, 강당 및 강의실
6. 21. 상임이사, 동문회장 연석회의-홍키명대이 평가회
7. 3. 부회장, 사내 학장단, 학과장 연석회의-홍키명대이 평가회
7. 17-18. 여수EXPO 참관-문화탐방

■ 동창회 來訪 人士

(2012. 5. 10. ~ 7. 20.)

- 이달호(교육40) 서울교대 명예교수
 강익식(체육40) 전 용인불산 회장
 윤종상(체육52) 본사전임주재 회장
 장종택(생물55) (사)한국교육환경연구원 이사
 이상주(교형58) 전 교육부총리, 본회 고문
 장성철(영어57) 전 국회의원
 정완호(생물58) 전 한국교원대 총장
 이희자(가정60) 명지대 명예교수, 본회 감사
 박상수(교육63) 용문상당 심리대학원대학교 총장
 이규택(교육61) 전 국회의원
 임동호(교육65) 전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상무
 권순용(교형61) 전 중앙일보 이사

- 최희선(교형60) 전 중부대 총장, 전 교육부 차관
 김영길(교육62) 전 성동고 교장, 본회 감사
 이순권(교육62) 세무사, 본회 청관장하의 감사
 정철희(체육62) 모교 명예교수, 본회 사임부 회장
 김경수(국어63) 중앙대 명예교수, 전 청사코디리 회장
 정용근(체육63) 서울대 명예교수
 박정현(국어64) 경찰대 명예교수
 서한샘(국어64) 한샘교육(주) 회장, 본회 출판부 회장
 임공희(영어64) 전 경기여고 교장, 여성동문회 회장
 고윤성(영어65) 전 영어교육과 동문회장
 최기숙(체육65) 전 구정중 교장, 본회 여성부 이사
 정한호(체육66) 단국대 명예교수, 본회 총무부 회장
 최귀남(체육66) 차세대고속관광 부회장, 본회 사임부 이사
 신정숙(과학67) 전 세종과학고 교장, 본회 조직부 회장
 유자호(물리68) 전 SBS 이사, 책살위원
 정장주(체육69) (사)한국요가문화협회 회장
 이병호(영어70) 세현고 교장, 영어교육과 동문회장
 이옥란(사회72)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여성동문의 부회장
 최옥수(체육72) 신도원고 교장, 여성동문의 부회장
 유용배(교육76) 모교 학생부부장, 본회 총무부 이사
 채현규(체육78) 개운중 교장, 본회 총무부장
 송우업(체육78) 용산공고 교사, 본회 사업부장
 김영산(지구83) 중앙과학전문 교육연구소, 본회 총무부 차장
 이기원(물리83) (주)OKL 이사
 오정숙(과학90) 서울과학고 교사
 박정현(과학94) 명덕외고 교사, 본회 조직부 차장

제37대 동창회 상임이사회 임원

2012. 8. 현재

구분	성명	학과(입학년도)	직장 · 직위	
회 장	변주선	영어 · 60	내딤성모병원 원장	
	부회장	정찬도	체육 · 66	단국대 명예교수
	이사	우용재	교육 · 76	서울대 사리 학생부하장
	부 장	채현규	체육 · 78	개운중 교장
총무부	차 장	김영산	지구 · 82	서울과학전문교육연구소
	부회장	신정숙	화학 · 67	전 세종과학고 교장
	이사	이영석	화학 · 67	(주)나우누리 상임고문
	부 장	김봉래	화학 · 85	세종과학고 교무부장
조직부	차 장	박상권	화학 · 94	명덕외고 교사
	부회장	정성희	체육 · 62	서울대 명예교수
	이사	최귀남	체육 · 66	차세대고속관광 부회장
	부 장	송우업	체육 · 79	용산공고 교사
사업부	차 장	임희	생물 · 86	원목고 교사
	부회장	이동식	영어 · 72	KBS 비즈니스 감사
	이사	설원태	영어 · 77	동북이연시재단 홍보모교실장
	부 장	오장민	국어 · 88	경향신문 산업차장
부내의협력	차 장	이원진	불어 · 98	중앙일보 시회부 기자
	부회장	서한샘	국어 · 64	한샘교육(주) 회장
	이사	박준연	영어 · 77	송신대 교수, 교육대 학원장
	부 장	전영식	국어 · 84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실
출판부	차 장	피해영	국어 · 96	KBS 보도국 기자
	부회장	임공희	가정 · 64	전 경기여고 교장
	이사	최기숙	체육 · 65	전 자영고 교장
	부 장	최영희	영어 · 65	전 경인고 교장
여성부	차 장	주복남	영어 · 67	전 태릉중 교장
	상임부회장	김장철	교심 · 60	천원외 천석기념회 사무국장
	감사	이희자	가정 · 60	명지대 명예교수
	감사	김영길	교육 · 62	전 성동고 교장

■ 행정대학원과 학사·석사 연계과정 협약체결

지난 4월 13일(금) 행정대학원과 학사·석사 연계과정 협약체결을 하였다.



■ 일본 동북대학교 교육협력 회의

지난 5월 1일(화) 교수소회의실에서 일본 동북대학교와 교환학생 등 대외협력추진 협의회의를 하였다.



■ 사범대학 교육포럼

지난 5월 11일(금)과 6월 1일(금) '글로벌교육역량의 현황 및 발전방안과 법안화 사범대학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논의하였다.



■ 스승의 날 사은 모임

지난 5월 14일(월) 12시 교수회관에서 명예교수 40여 명을 초청하여 스승의 날 사은 모임을 가졌다.



■ 전국국립사범대학 부설중·고등학교 연합회 워크숍 개최

지난 6월 8일(금) 교육정보관에서 '학력과 인성의 균형있는 성장을 통한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하계 교수 학사협의회

지난 6월 18일(화)부터 22일(수)까지 여수임대에서 학장단 및 교수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범대학 장기발전계획 및 현안 토의를 하였다.



國語教育科

◆ 국어교육과 졸업 40/30/20/10주년 기념 모임

지난 4월 18일(수) 교대역 근처 호정회관에서 국어교육과 졸업 40/30/20/10주년 기념 모임이 열렸다. 10주년 단위로 졸업을 기념하고 동문회의 향후 사업을 계획하는 이 자리에는 朴載浩(86) 동문 등 해당 기수의 기별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 국어교육과 동문회 2012 사은의 날

지난 5월 17일(목)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2012년 국어교육과 동문의 사은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李杜鉉 서울대 명예교수(’46) 등 35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동문께 감사의 꽃 달아드리기, 원로동문 덕담, 스승의 날 노래 합창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 국어교육과 신규 임용교사 환영 모임

지난 6월 28일(목)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국어교육과 신규 임용교사 환영 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朴三楙(69) 동문회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장단 5명, 2012년 신규 임용교사 3명이 참석하였다.

化學教育科

◆ 화학교육과 동문회 임원회의

화학교육과는 지난 2012년 6월 29일(금)에 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휴거링데이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휴거링데이는 10월 6일(토)로 정해졌으며, 당일 동문회에서 4명에게 장학금 1,000,000원씩 총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화기에예한 분위기에서 동문회 활성화 방안과 화학교육과의 발전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英語教育科

영어교육과는 지난 5월 19일(토) 모교 교수회관 옆 출판식당에서 춘계 자유회 모임을 가졌다. 참석한 동문들과 레크레이션 게임, 재학생들의 기타 공연 관람, 점심 식사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자유회에서는 모교 학과 동문 교수님들과 학과장님을 모시고 장학금 전달 식도 있었다. 이병호 회장(사신:작)이 지난 3월 사범대학 총동창회에서 수여한 청관대상 사도상 수상금 100만원을 모교 학과 장학금으로 기증하였고, 77학번 동기회(사신:우)에서 모교 학과 발전기금으로 1018만원을 기증하였다. 또한 직년에 영어과 동문회에서 모금한 장학금을 수령한 모교 학과 학생들이 참석하여 감사의 뜻을 표해 동문 선�후배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歷史教育科

◆ 2012년 역사과 동문회 신년회

역사교육과 동문회는 2012년 1월 6일(금) 17시 호암교수회관에서 신년회를 가졌다. 역사과 명예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50여명의 동문들이 모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신년회를 끝으로 대성현 동문회장이 퇴임하고, 신임회장으로 정진석(71, 송인중학교 교장) 동문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 이홍중(54학번) 선생님 헌문 강좌 실시

2012년 3월부터 중등학교 교사직에서 정년퇴직 후 황산시원 원장으로 가르침을 베풀고 계신 이홍중 동문께서 학부 및 대학원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헌문강좌를 실시하십니다. 3월 10일(토) 첫 수업을 시작하였고,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2012년도 춘계학술교과담당사 실시

역사교육과는 2012년 3월 21일(수)~23일(금) 제주도 일대에서 80여 명의 학과 교수 및 학부생, 대학원생이 참가하는 춘계학술교과담당사를 실시하였다. 제주도에 계신 여러 동문들이 찾아와 은사님께 인사드리고 후배들을 격려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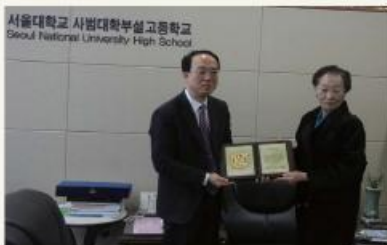


이진영(교육 51) 동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 1억원 기탁

평생을 중등교육에 헌신해 온 이진영 동문이 모교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교장 이기성/화학75)에 '항상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

이 동문은 교직에 종사하면서도 부군 강영희(전 연세대 부총장) 교수를 우리나라 생명과학계의 큰 별이 되게 했고, 강 교수는 정년퇴직 후 10년간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생명과학대사전』의 인세를 평생 내조해 준 아내를 위해 내놓았고, 이 동문은 전액을 후배들의 장학사업에 내놓은 것이다.

특히 이 동문은 이 장학금을 시어머니 문옥련(文 杻蓮)님의 이름으로 기부하여 주위로부터 더욱 칭송을 받고 있다.



청관대상 후보자 추천

- 마감 일자 : 2012년 12월말
- 시상 일자 : 2013년 3월 정기총회에서
- 시상 종 류 : 사도상, 학술상, 공로상
- 추천서 양식 : 홈페이지 (www.snueaa.or.kr)
 - 청관대상 후보추천서
 - 공적조서
 - 이력서(사진첨부)
 - 기타 공적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 1통

- 서류를 보내실 곳 : (우.100-130) 서울시 중구 순화동 215 바바뱅크3차 1807호

- ※ 기타
 - 추천서 제출은 우편을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본회 소정 양식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으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元植(教育.48) 전 국무총리

환경대상 심사위원장으로

장영식 전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4일 시상한 제20회 조선일보 환경대상의 심사위원장으로써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이사 등 6명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환경보전 활동을 얼마나 지속적·강의적으로 했는지 과다표치는 어떤지 등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全英南(國語.53) 수원대 명예교수

고르기야스, 프르타고라스·파이드로스 번역·출판

스피치 전공의 수원대 전영우 명예교수가 소크라테스의 스피치 철학을 담은 플라톤의 대화편 '고르기야스'(부제: 레티릭)와 '프르타고라스·파이드로스'(부제: 소피스트들)를 번역, 출판했다. '고르기야스'는 당시 주요 장르인 고르기야스와 플라톤 등 아테네 소피스트들이 접한 변론교육의 중요성을 초기에 플라톤이 일찍이 보인 내용이다. '프르타고라스·파이드로스'는 수사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힌 책이다. (민지사 7 / 12,000원, 13,000원)



■ 郭柄謙(教育.66)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피터 브라이스 교육상 수상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지난 6월 28일 관테평양교육협의회(PCC: Pacific Circle Consortium)로부터 관테평양교육협력에 이바지한 공로로 피터 브라이스 교육상(Peter Brice Award)을 수상했다. 피터 브라이스 교육상은 교육에 헌신하다 요절한 뉴질랜드 교육자 피터 브라이스를 기려 관테평양 교육협의회가 교육분야에 헌신한 인물에게 주는 상이다.



■ 金基典(教育.67) 서울대 교수

제2회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 수상

서울대는 제2회 '서울대학교 사회봉사상' 수상자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인 김기석 동문을 선정했다. 김 동문은 지난 2007년 국내의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국경없는 교육가회'를 설립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 교육발전, 빈곤퇴치 활동을 벌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동문은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 최빈국인 부르키나파소에서 극빈 농촌여성 지원, 보건교육, 직업기술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또 2010년부터 부르키나파소에 6개 문해교육센터를 설립, 2011년에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아이티의 사범학교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활동에 나서 재건과 변영에 기여했다.



■ 金應福(社.81) 교과부 대학지원실장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인 김응복 동문이 지난 5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내정됐다. 1962년 충북 보은에서 태어난 김 동문은 경주 고등학교, 서울대 사회교육과(학사), 서울대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교에서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동문은 5급공채 28회 출신으로 1985년 총무처 수습행정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행정지원과장부터 국제교육협력과장, 교육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장학 비서관, 충남대학교 사무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주 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냈고, 이후 교과부로 복귀해 대학선진화관을 맡았으며 2011년 9월부터 대학지원실장에 재직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임광수)는 지난 5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4대 회장단 상전례를 갖고 부회장 등 새로운 임원진에게 선임장을 전달했다.

▶ 사대 동문 임원진

동 창 회	고 문	정원석(교육학파 48-54)
	부 회장	이상준(교육행정 56-60)
관 약 회	부 회장	반우선(영어교육 60-64)
	이 사	신명규(생물교육 48-54)
동 창 회 보	논설위원	이오봉(교육학과 61-70)
		윤재식(외국교육 71-75)
		이동식(영어교육 72-76)
단과대(원)동창회장	생활 대	허영길(지리교육 74-78)
	교 원 대	곽명진(기계교육 65-69)
		최홍구(교육대학원 65-67)

폐지할 것은 서울대가 아니라 고교 평준화

김정래 (교육 77)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민주통합당이 '서울대 폐지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야당이 내세운 여러 가지 명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폐지론은 적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한다. 가장 그럴듯한 명분인 지방 균형발전은 인위적인 작위(作爲) 한 번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앞에는 대신에 지방에 여러 개의 서울대를 두겠다'는 주장, 즉 서울대를 폐지하면 지방대학들이 서울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발상은 순진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다. 또 '서울대 대(對) 비(非)서울대' 구도를 만들어 '소수 가진 자 대 다수 못 가진 자'의 그릇된 편 가르기 구도로 돌아가려는 유지할 포퓰리즘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서울대 폐지론의 지방권이 대학 평준화라는 데 있다. 대학 평준화의 폐해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육 만약(萬難)의 근원인 고등학교 평준화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평준화의 폐해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교육을 실현한다는 평준화 정책은 거꾸로 불평등을 조장한다. 서울 강남 3구의 서울대 입학 수가 다른 구보다 최대 15배가 많다.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학력과 명문대 진학을 통한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둘째, 평준화 이후에 사립고교들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3조 원가량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셋째, 획일성을 요구하는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국가독점을 강화한다.

서울대 폐지론은 가뜰이나 평준화로 명등고 있는 우리 교육을 대학 평준화로 아예 망가뜨리겠다는 발상이다. 서울대 폐지론의 명분 중 하나인 사교육 철폐의 명분도 역시 고교 평준화 폐해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교 평준화로 대도시 중학생들이 과의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평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학교선택권과 학생선택권이 박탈되고 획일화된 평준화 제



에서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당연하다.

다양한 교육욕구가 분출되지 못하여 유일한 출구인 대학입시에 몰림현상이 나타난 결과가 사교육 집중 현상이다. 따라서 사교육 집중을 완화하려면 서울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입시경쟁 완화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다. 경쟁을 악덕으로 보는 죄마의 시각에서 보면

서울대는 분명 눈엣가시일 것이다. 그러나 경쟁은 자기발전의 절차이고, 자기발전의 동력이다. 더욱이 글로벌 인재 육성은 경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대학 시절화는 경쟁 척도를 나타내는 필수 요소이다. 서울대를 없애면 대학이 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역할을 하는 사립대가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사립대를 통제하는 한국에서 사립대는 돈이 많이 드는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감당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결점을 갖는다.

이와 관련, 일본이 한국 평준화의 선례가 된 학교군(群) 제도 불고이즈미 권권 때 폐지하고 공립 고교 중에서 입시지도 중점 학교를 선정할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된다. 평준화 적용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가 우수 인재 양성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던 일본이 이런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평준화 폐지와 함께 대안 반성이 담긴 조치이다.

대학 평준화를 시도했던 독일과 프랑스는 국가경쟁력 순위와 노벨상 수상자 배출에서 크게 뒤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철폐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득표 전략에 따라 나라를 삼류 국가로 돌아가려는 역주행을 대학 평준화를 통해 시도할 것인가.

(조선일보 2012. 7. 3. 中)

정정합니다

동행회보 제174호 中 P.3 휴커밍데이 행사 후원 약정자 명단에서 신정숙 동문은 전자학과가 아닌 전 화학교육과 동문회장입니다.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합시다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6305 (변주선)

전체교육의 鼎足에 輝煌한 회장을 비롯한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동문들께서는 예수의 피에 깨끗히 마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관건립기금 신규 출연자 (2012. 5. 5. ~ 7. 11.)

• 90만원 박동원(역사53)

동창회비를 납부합시다

본 동창회는 師大 전체 동창회의 活性化는 물론 各科 同門會, 市道支會 등의 활성화에도 積極 관심을 갖고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간의 상호회 활동, 친목대회, 동문과 동문간의 교류지원방안 등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 및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문번호 : 7521964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3405 (예금주 : 변주선)

회비내역

회 장	2,000,000원
고 문	300,000원
자문위원	200,000원
부회장, 감사	300,000원
이 사	50,000원
일 반	30,000원
평생회비(회)	
이 사	400,000원
일 반	200,000원

회비 납부자 명단 (2012. 2. 11~7. 11.)

일반 평생회비(20만원)

김영숙(교심54) 박형권(국어60) 임준섭(영어7) 구영주(생물72)
한홍승(역사55) 최영원(물리66) 박종수(수학77) 송기철(교육77)

임원회비

변주선(영어60-회장) 200만원 김창철(교심60-부회장) 30만원
신찬우(영어48-고문) 100만원 이상주(교육56-고문) 100만원

이사회비

(교육)	이영주(52)	5만원	장중식(51)	10만원	
이승권(62)	5만원	장주성(52)	5만원	홍경민(54)	5만원
박화영(64)	5만원	손종국(55)	10만원	오성홍(58)	5만원
(교심)	연대성(60)	5만원	(지리)		
유덕훈(60)	5만원	(사회)	나도승(47)	10만원	
황채희(61)	5만원	홍신영(57)	5만원	김대경(50)	10만원
(국어)	유영선(67)	6만원	신중성(61)	5만원	
손수일(48)	5만원	홍길근(70)	10만원	국해영(63)	5만원
전성택(54)	5만원	김정기(74)	10만원	최양기(70)	5만원
박찬규(56)	5만원	(역사)	(수학)		
김종민(59)	5만원	이원순(48)	5만원	나근형(58)	5만원
(영어)	고은수(51)	5만원	(물리)		

이우현(53)	5만원	신일유(66)	5만원	(가정)	
유재형(56)	5만원	(생물)		이계숙(60)	10만원
신홍규(58)	5만원	구성희(55)	5만원	(체육)	
이노연(58)	5만원	윤백경(56)	5만원	박종달(48)	5만원
이상우(61)	5만원	최봉주(56)	5만원	이규식(58)	5만원
(화학)		김영민(58)	5만원	최기숙(65)	5만원
장병덕(53)	5만원	김경애(64)	10만원		
이상진(61)	5만원	오근주(76)	5만원		

일반회비

(경사)		유봉희(48)	20만원	황기태(49)	30만원
재욱례(영어55)	30만원	남한식(51)	20만원	8만천(50)	20만원
(경역사)		심상식(58)	30만원	장동화(53)	20만원
오진영(강38)	30만원	이우봉(61)	20만원	장기생(58)	30만원
김오수(연38)	20만원	방재래(62)	30만원	권정순(59)	20만원
김은주(강45)	20만원	(교심)		김수형(61)	40만원
한희홍(심46)	30만원	진과연(52)	30만원	김경수(63)	30만원
(교원)		정문형(59)	20만원	이홍재(70)	30만원
이재형(수70)	30만원	(교향)		(영어)	
(예리)		김만기(59)	20만원	김영준(49)	20만원
서윤수(1048)	20만원	신철재(60)	30만원	최갑순(49)	20만원
장유순(문48)	20만원	(국어)		이희명(49)	20만원
(교육)		이두현(48)	20만원	김순신(51)	20만원
박인식(48)	30만원	오유영(49)	20만원	김종석(52)	20만원

진태수(52)	2만원	나청은(58)	2만원	김용복(57)	2만원	이상복(67)	3만원	이시훈(57)	3만원	홍은표(54)	3만원	3만원
홍희륜(54)	2만원	안경화(63)	2만원	김진철(68)	2만원	하상기(74)	3만원	장신식(59)	3만원	김진철(66)	2만원	2만원
민영업(55)	2만원	구관서(70)	3만원	이종석(02)	3만원	김석원(78)	3만원	한정림(59)	3만원	하영준(56)	2만원	2만원
유원수(55)	3만원	(역사)		(수학)		안정훈(99)	3만원	손영목(60)	3만원	김동현(57)	3만원	3만원
구양수(60)	3만원	김영수(47)	2만원	홍정호(55)	2만원	(화학)		곽동수(63)	2만원	이양범(57)	2만원	2만원
김주현(61)	2만원	박주해(50)	2만원	이종락(56)	2만원	김상욱(47)	3만원	(가정)		이상철(59)	2만원	2만원
박정민(65)	3만원	정영호(51)	3만원	이상석(59)	3만원	최성민(53)	3만원	신혜수(47)	2만원	유영수(61)	3만원	3만원
최정재(65)	3만원	박정수(52)	3만원	이종연(63)	3만원	신동철(53)	3만원	홍성수(50)	2만원	유미희(62)	2만원	2만원
노갑기(66)	2만원	이남규(54)	3만원	임광수(68)	2만원	탁인재(63)	3만원	김성동(52)	3만원	이만형(62)	2만원	2만원
박홍식(74)	3만원	이홍준(54)	2만원	정은실(70)	2만원	이만기(71)	3만원	안영수(52)	3만원	김정영(65)	2만원	2만원
박현수(76)	2만원	이재현(59)	2만원	김종길(03)	3만원	(생물)		이영주(54)	3만원	최기남(66)	3만원	3만원
배영길(79)	3만원	이세현(59)	2만원	(물리)		김여순(50)	2만원	고정욱(59)	2만원	김기관(67)	2만원	2만원
(독어)		강양수(57)	2만원	강 욱(50)	2만원	김주호(50)	3만원	김유연(57)	3만원	송동수(67)	3만원	3만원
임상순(60)	3만원	구자현(57)	3만원	김희현(50)	2만원	김동진(51)	3만원	이화숙(57)	3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이상경(65)	3만원	강정식(59)	3만원	한원윤(53)	2만원	김구삼(52)	3만원	조경애(57)	3만원	이태영(71)	2만원	2만원
이윤덕(67)	2만원	김해우(64)	2만원	이완(54)	3만원	최계숙(52)	3만원	장진영(58)	3만원	(대학원-석사)		
조성호(68)	2만원	송기(69)	2만원	조양래(55)	3만원	홍인기(54)	3만원	(체육)		이종현(생물08)	2만원	2만원
(사회)		(자료)		우상혁(56)	3만원	이상규(57)	2만원	이우도(53)	2만원			
주봉노(55)	2만원	신길경(50)	2만원	이기홍(56)	2만원							
김봉구(56)	2만원	황석근(51)	2만원	오종석(57)	3만원							
이호성(57)	3만원	차동원(59)	3만원	곽희라(61)	2만원							

* 기금, 회비 납부상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관장학회 장학금 기부 명단

허현호(수학67)

5,000,000원

최남산(체육51)

500,000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2012 송년 모임

- ▣ 일시 : 2012년 11월 27일(화) 오후 6시
- ▣ 회비 : 30,000원
-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시청 앞) 31층 슈벨트홀
- ▣ 신청 : 11월 20일까지

Tel. (02) 6399 - 6500 / Fax. (02) 6399 - 6501

- * 1.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 만찬과 여흥·게임·푸짐한 경품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최다 합격! 교과서 점유율 1위!

천재교육



호두가 1등 이 되는 세상

천재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라이언 카사는 IQ 43입니다.
하지만 그는 수학과를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라이언 카사는 비록 풀피였지만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지
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길게 보면 그가 1등인 거죠.

풀피가 행복해야 1등 세상이기에